

“보복 아니다” 거듭 강조

○...국방부는 14대 총선의 군 부채자 투표에서 일어난 대리투표를 언론에 제보한 국군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을 구속 시킨것이 보복이라는 여론이 일자 “보복이 아니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리투표를 직접 행한 이 일병이 제보자임이 드러나 소속부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부대로 진출시키면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며 이 일병의 구속에 대한 ‘고충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일병은 기소 단계에서 정상이 참작돼 풀려날 것”이라고 내다보며 국방부가 일개 사병에게 보복할만큼 ‘힘이 약한’ 조직이 아님을 거듭 강

리직 반발을 줄 수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수와 교직원들의 차등 인상은 교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순시 3일전부터 삼엄경호

○...17일 노태우 대통령의 제주도 지방순시에 따른 경호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강화돼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과잉경호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 경호경비업무는 방문 사흘전인 14일부터 도청 각 층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도청을 드나드는 차량들의 트렁크와 개



운데 경찰이 지난 14~17일 사흘동안 유흥업소에 붙어살다시피 하며 검거한 폭력배 39명 중에는 현금 2천원을 갈취한 경우도 있어 과연 의욕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전주=장세환 기자>

실국장 인사설에 술렁

○...교육부 직원들은 다음주에 있을 예정인 인사이동 발표를 앞두고 인사의 폭과 승진자 명단을 점치며 술렁이는 분위기이다.

교육부 인사는 애초 지난주초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 감사 등으로 연기됐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승진하고 누구는 다른자리로 옮긴다” “누가 승진하고 누구는 다른자리로 옮긴다”는 식의 소문이 나돌아 어수선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장급 몇명도 옮길 것으로 알려져 일부 국장

국방부 “이일병 보호위해 구속” 변명

사립대교수 총액제 싸고 정부부처 이견 대통령 제주방문 앞두고 도청 과잉검색

조했다.

교육부-노동부 ‘빼그덕’

○...총액기준 5% 이내 임금 억제 증점관리대상’에 포함된 42개 사립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수만이라도 예외로 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해, 정부부처 안에서도 총액임금제를 놓고 빼그덕거리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노동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에 준해 이미 총액기준 12% 정도 임금을 올린 상태이므로 사립대 교수의 임금을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점관리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는데, 노동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언론기관과 연구원들에게 끼칠 과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에게도 심

인용 가방을 검색하고 금속탐지기 등 동원해 일일이 조사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원실을 찾았던 한 시민은 “대통령의 지방 나들이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긴장감을 불러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불평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때늦은 ‘범죄와의 전쟁’

○...지난 12일 밤 전주시내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세력다툼 끝에 상대편 행동대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경찰 수뇌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듯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이수일 경찰청장이 “다시 폭력배 사이에 살인사건이 나면 관할 서장을 직위해제시킬 것”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

들은 잔뜩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건노조 움직임에 긴장

○...경기경찰청은 이번 4월들어 전노협 산하 경기지역 노조는 물론 평소 온건 노선의 대기업 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노조까지도 한목소리로 총액임금제를 규탄하고 나서자 이들의 실력행사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해마다 봄만 되면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쟁의로 안그래도 경찰이 흥역을 치르는데 올해는 정부가 설득력도 별로 없는 총액임금제를 내놓아 노동자들을 들쭉서놓고 있다”며 “뒤치다꺼리를 맡아야 할 경찰만 곤욕을 치른다”며 불만 소리들을 하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